

# 여성 낙농인 우유요리홍보 요원화 교육을 마치고

올해 처음으로 우유요리 대신 수제 치즈교육으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 무척이나 반가웠다. 다른 낙농인들이 체험목장이다 치즈다 열심히 뛰고 있을 때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지내온 세월을 뒤로하고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치즈에 관심을 많이 갖고있던 때라 더욱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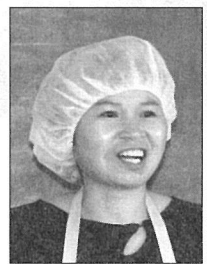
첫 교육이니만큼 여주농업전문학교에서 시연회를 가진다고 했을 때 난 기쁜 마음으로 하루 전에 도착하여 다음날 시연회에 참석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두분 강사님의 열띤 강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그 기분을 만끽하며 7월 4일 함안군농업기술센터, 7월 5일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두 곳에서 가졌던 수제치즈교육이 이루어졌던 날을 기억해본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 출발하여 8시 정확하게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다. 강사, 협회 여성분과위원장, 총무, 직원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 원유가 도착하여 바로 살균작업에 들어갔다.

10시가 가까워지자 치즈교육의 특성상 적정 인원이 교육 받아야 효율적임에도 많은 교육생들이 참석하였다. 그동안 우유요리 교육도 그랬지만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보다 더 한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교육은 없었다. 많은 인원임에도 우려와는 달리 교육은 순조로웠다.

다들 직접 만든 치즈에 자부심을 느끼며 수제 치즈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해했다. 집에서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고 모두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착유시간 딱 맞겠다면서 기쁜마음으로 헤어졌다.

함안군을 이어 다음날 양산기술센터에서 또다시 만났다. 조금 더 친근감이 들었다. 아침출근길 복잡한 시간이라 8시가 조금 지나서야 도착했는데 모두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이윤돌**  
협회 여성분과위원장  
경남도위원장



원유가 도착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되었지만 부지런히 살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생들이 하나 둘 교육장소로 모여들었다. 다들 기대에 찬모습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적은 인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오가며 마침내 스트링 치즈가 완성 되었을때

모두들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기가 만든 치즈를 맛보며 조그마한 치즈 봉지를 하나씩 들고 착유시간 늦겠다며 열린 단체사진을 ‘치~즈’ 하며 찍었고 찹쌀 다음을 기약하며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다.

몇 분인가 남아 뒷정리를 하고 직원분들은 내일은 경북 김천으로 간다고 차량에 이삿짐 만큼이나 많은 짐을 하나하나 실었다. 또다시 옷은 땀에 흠뻑 젖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흘린 땀만큼 보람된 교육이었다고 생각했다.

수제치즈 교육을 마치고 집에서 치즈를 만들었다며 그 때마다 다른 맛이라며 서로 물어보고 관심이 많았다. 체험목장 하시는 분도 수제치즈 매력에 몇번 더 했음 좋겠다고 치즈벨로 치즈를 만들어도 매번 다른 맛이라고 하였다.

우리 분회에서는 다같이 만들어보라며 모임이 있는날 수제치즈를 만들어 보기로 약속했다. 그날은 막걸리로 발효시켜 만든 옛날 찌빵을 한 소쿠리 해놓고 기다리겠다는 목장도 있다. 옛날 찌빵과 수제 치즈의 만남도 기다려진다.

끝으로 그동안 전국순회 교육에 정말 고생하신 강사들, 이정희 위원장과 김옥란 총무,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

경남 치즈 교육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부산우유와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각지역에서 앞장서 애써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유가공 교육을 접할수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전국의 낙농가들이 무더운 여름, 젖소들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나길 빌어본다. ☺